

# 중국내 초급한국어교재의 현황과 과제

## -어음·어휘·문법을 중심으로

북경공업대학교 유춘희

### 1. 머리말

교재는 교육과정에 따라 편찬되며 교수방법이나 평가방법 등이 담겨 있고 교사와 학습자의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교육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성공적인 교수-학습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교재분석과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 좋은 교재는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고, 교사와 학습자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공해 주며, 교사와 학습자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김용만 (한국어교육론 1,220-221 페이지)에서는 수업에 알맞은 교재를 쓰는 것은 아래와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첫째, 교재를 통해서 교사가 무엇을 가르쳐야 하는가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받을 수 있다. 둘째, 교재를 통해 해당 교재에서 제시한 기준에 따라 구체적인 수업 내용과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셋째, 교재가 지니는 전반적인 흐름과 틀 속에서 수업을 진행하므로 일관성 있는 수업 진행에 도움이 된다. 넷째, 평가 항목이나 평가 내용 선정과 관련된 지침이나 참고 사항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섯째, 학습자에게 한 학기 동안 배우게 될 내용에 대한 전반적인 안내와 이해를 제공해 준다.

개혁개방 이후, 특히는 중한 수교 이후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이 급속한 발전을 가져 오면서 국내에서 한국어 교재편찬도 크게 활기를 띠어 여러 대학들에서 각자 자기 대학 실정에 맞는 교재편찬을 시도하였고, 한국에서 편찬한 한국어교과서들도 중국 도서 시장에 많이 나와 학습자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고 있다. 이런 교재들은 그동안 중국의 한국어교육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한국어 교육자들도 한국어 교육과 교재편찬에서 적지 않은 경험을 쌓았고 관련 연구성과들도 괄목할 만하다. 그럼에도 교육과정에서 드러나는 한국어교재의 미비한 점들이 교육의 질적 향상에 아쉬움을 남긴다.

본 논문의 목적은 대학 한국어과 초급한국어 정독교재<sup>1</sup>에 대해 어음·어휘·문법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금후의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데 있다. 지금 중국의 대학들에서 쓰이고 있는 교재는 한국에서 편찬한 교재와 중국내 대학들에서 편찬한 교재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2000 년 이후 중국내 여러 대학들에서 편찬하였거나 수정판이 나온 10 종의

<sup>1</sup> ‘정독(精读)교재’는 어음, 어휘, 문법 등의 기본 언어 자료를 전수하도록 만들어진 교재로서 ‘종합교재’라고도 한다.

초급한국어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sup>2</sup> 초급교재는 학습자가 한국어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접하는 교재이므로 어음·어휘·문법이 중요한 지식으로 등장하게 된다. 그러므로 분석 과정에 기초어휘 목록과 조사·어미 빈도순 등도 참조하여 논의하기로 한다.

## 2. 현황 분석

어떤 교재든지 교수목적과 교과과정의 수요에 따라 편찬된다. 현재 중국의 대학 한국어학과에서는 초급한국어 강의 시수가 한 학기에 160-180 정도 된다<sup>3</sup>. 교재의 분량이나 난이도가 학습자의 학습 시간과 습득 능력을 염두에 두고 편찬되어야 함은 두말할 것 없다. 논문의 편폭상 모든 것을 상세하게 다룰 수 없으므로 이 장에서는 주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 삼은 교재와 기본 지식 분포는 다음과 같다.

<표 1> 교과서의 지식 분포

교과서명(논문에서 쓰인 약자)	권	어음(과)	단어(개)	문법(항 <sup>4</sup> )	본문(과)
표준한국어(Z) 25개대학편	1	12	878	58	18
	2		822	85	20
표준한국어교정(L) 장광근 외	1	15	863	102	13
	2		1426	130	16
초급한국어(F) 강은국 외	상	10	1380	143	20
	하		2170	122	25
한국어(B) 이선한 외	1(수정본)	10	1001	137	10
	2		2148	210	15
대학한국어(수정본)(W) 우림걸 외	1	4	134 <sup>5</sup> /871	75	14
	2		1148	81	18
기초한국어(Y) 김영수 외	1	13	1075	115	17
	2		1184	93	17
초급한국어(수정본)(C1) 최희수 외	상	17	1228	131	16
	하		1236	110	18
신편 초급한국어(C2) 최희수 외	상	15	1417	140	15
	하		1444	132	15
초급한국어교정(G) 전영근 외	상	14	1536	142	16
	하		1258	111	16
초급한국어(S)	상	10	960	82	18

<sup>2</sup> 25개 대학의 공동편찬으로 된 <표준 한국어>는 1-3으로 되었는데 1996년에 출판된 이후로 수정판이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일부 대학들에서 이용하고 있다고 하므로 분석 대상에 넣기로 하였다.

<sup>3</sup> 이것은 제1학기를 기준으로 한 것이고 제2학기에는 이보다 좀 줄어드는 학교도 있다.

<sup>4</sup> 조사·어미와 관용구만 통계한 것이다.

<sup>5</sup> 이 교과서에서는 어음단계에 준 연습용 단어 134개는 단어표(부록)에 넣지 않았다. 학생들에게 기억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전용화 외	하		1252	106	22
-------	---	--	------	-----	----

## 2.1 어음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교육은 학습자가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대부분 문자와 발음 교육이 병행되므로 학습자들의 특성에 맞게 한글 자모와 음절, 받침, 음운변화 등이 우선 교재에서 과학적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표 1>에서 보이듯이 분석에 이용한 교과서들은 대부분 10 과에서 15 과에 걸쳐 문자와 발음을 소개하고 있다. 어음지식의 습득과 강의 시수를 감안할 때 어음지식을 10-15 과에 나누어 주는 것은 비교적 합리하다고 생각된다. <W>에서는 한국어개황과 문자와 발음을 1-4 과에서 소개하고 있다. 한국어에 관한 지식을 먼저 개괄적으로 간단히 주는 것은 좋으나 어음지식을 너무 요약해서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이다. 자모와 발음 교육을 교재에서 너무 간단히 지나치면 학습자들이 한국어 자모와 발음을 익히는데 필요한 단어나 연습자료의 부족을 느끼게 될 것이며, 교사 또한 학습 진도나 강의 양을 알아서 해야하는 부담을 갖게 된다.

한글은 자모문자로서 모어 사용자에게는 아주 쉽게 배울 수 있는 문자이지만 외국어로서 배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그 발음이 쉽지 않다. 그리고 한자의 특성상 글자를 전체적으로 인식하는 데 습관된 학습자들은 자모문자의 분석적 인지도 낮은 것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어음지식을 너무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본문을 배우는 과정에 어음에 익숙치 않아 오히려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발음은 배움의 초기에 바르게 잡아줘야지 일단 습관이 되면 교정하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일정 기간의 어음단계를 거치면서 문자와 발음에 익숙해진 뒤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는 것이 무난할 것이다.

### 2.1.1 어음의 제시<sup>6</sup>

교재에서 어떤 순서로 지식을 주느냐는 지식의 과학성이 고려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학습자들의 습득 특성도 고려되어야 한다.

교과서의 모음제시는 대체로 두 가지로 나뉘었다. 한 부류는 단순모음과 이중모음을 따로 제시하고 다른 한 부류는 사전식 순서에 따라 제시하고 있다. 단순모음은 이중모음보다 발음이 단순하고 학습자의 모어에도 같거나 비슷한 음들이 있으므로 이중모음보다 쉽게 습득할 수 있으며, 단순모음에 익숙한 다음에는 이중모음을 발음하기가 훨씬 쉬워진다. 언어행위 속에서도 단순모음은 이중모음보다 절대적인 우세로 많이 쓰이고 있으므로<sup>7</sup> 먼저 가르쳐서 발음을 익숙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sup>6</sup> 필자는 「초급한국어교재에서의 어음지식제시에 대하여」에서 어음제시에 대해 상세히 논한 바 있으므로 이 논문에서는 간략하게 정리한다.(『중국조선어문』 2010년 1기를 참조하기 바란다.)

<sup>7</sup> 실제로 쓰고 있는 음절 중에 단순모음으로 된 음절은 994 개로서 고유어 말뿌리 1206 개의 82.42%이다. 이중모음이 들어간 음절은 212 개로서 1206 개의 17.57%밖에 되지 않는다.

「조선어실험음성학연구」 85 쪽 참조.

자음제시는 발음방식과 발음위치를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어떤 교과서에서는 발음방식에 따라 제시하였고 어떤 교과서에서는 발음위치에 따라 제시하였는데 중국인 학습자들에게는 한국어 자음의 발음위치와 발음방식 중 후자가 더 어렵게 느껴질 것이다. 중국어에도 입술소리, 혀끝소리, 혀뿌리소리 등이 있어 발음위치가 학습자들에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 그러나 중국어에서 장애음은 유기음과 무기음의 대립으로만 존재하지만 한국어의 장애음은 순한소리, 된소리와 거센소리의 세 종류가 대립을 이루고 있어 발음방법에서의 차이를 변별하기 어렵다.

중국인 학습자들이 한국어 어음습득에서 제일 어려워하는 것의 하나가 받침의 발음이므로 교재에서는 과학적이고 실용적으로 받침을 제시해야 한다.

받침의 제시에서는 받침소리 일곱개를 동시에 제시한 교과서도 있고 발음위치에 따라 나뉘서 제시한 교재도 있다. 중국어에는 한국어받침처럼 종성위치에 오는 자음이 /n/ 과 /ng/밖에 없으므로 받침에 익숙하지 않은 학습자들에게 일곱 가지 받침소리를 한꺼번에 가르치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여러 받침소리에서 받침 /ㄱ/이 먼저 제시된 교재도 있는데 학습자들은 중국어에 없는 혀뒤소리받침의 발음위치와 발음방법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받침 교육을 할 때 어려운 /ㄱ/을 먼저 제시하는 것은 습득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2.1.2 자모음에 대한 설명

어음은 어휘와 달리 눈으로 보고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어음에 대한 설명은 아주 중요하다. 그런데 어음의 설명에서 일부 과학적이지 못한 설명들이 보인다. 특히 어떤 음을 중국어의 발음과 비슷하다고 제시하는 것은 좀더 신중을 기해야 할 문제이다. 예를 들어 한국어 모음 /ㅡ/를 중국어의 zi, ci, si 중의 /i/와 같다고 설명하거나 /ㄹ/을 중국어의 /r/ 혹은 /l/과 비슷하다고 하는 것 등은 과학적이지 못한 설명이다. 한국어에서 /ㅡ/는 후설 고모음이고 중국어 zi, ci, si 속의 /i/는 전설고모음이다. 그러므로 사실 /ㅡ/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발음의 난제로 되는 모음이기도 하다. 그런데 서로 다른 두 가지 음을 같다고 설명하는 것은 편찬자가 중국어와 한국어의 자모음 음가에 대해 정확한 지식을 갖추지 못한 결과라고 하겠다.

어음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많은 교과서들에서는 자음의 발음위치를 보여주는 그림이나 모음사각도를 제시하였다. 이는 학습자들이 직관적으로 보고 모방함으로써 추상적인 어음을 이해하고 바른 발음을 배울 수 있게 배려한 부분이다. 그러나 일부 사진과 그림은 과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다. 어떤 그림에서는 /ㄱ/의 입벌림이 /가/의 입벌림보다도 더 크게 나왔다. 이러한 그림은 편찬자의 의도와는 달리 학습자들에게 정확한 지식을 줄 수 없다.

### 2.1.3 어음변화

한국어의 자모와 음절을 익힌 뒤에는 주로 단어를 이용하여 발음 훈련을 하게 되므로

단어의 발음에서 나타나는 어음변화지식이 반드시 필요하다. 단어 내에서 나타나는 어음변화는 주로 연음화, 된소리화, 거센소리화, 입천장소리화, 자음동화, 소리의 첨가 등이 있다. 그런데 어떤 교재들에서는 어음변화 지식이 제시되지 않거나 너무 간단히 스치고 지나가는 정도였다. 예를 들면 교재 <Z>에서는 어음지식이 전혀 제시되지 않고 본문에서 나오는 일부 어음변화현상을 [발음]이란 제시 아래 그 단어의 발음만 써주고 있다. 또 어떤 교재에서는 어음단계에서 어음변화를 전혀 언급하지 않고 본문부터 연음되기과 된소리되기 등이 설명된다. 문제는 어음단계에 제시된 단어에 어음변화를 동반하는 단어들이 적지 않게 나온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있다, 꺾다, 닦다, 가없다, 밝다’ 등의 된소리화가 되는 단어들과 ‘넣다, 넣다, 좋다, 끊다, 괜찮다’ 등의 거센소리화가 되는 단어들이 등장하는데도 어음변화 지식은 주어지지 않고 있었다. 이런 단어들의 발음훈련에서는 학습자들이 어음변화규칙을 알고 발음해야 효과적일 것이다.

어떤 교재에서는 어음단계에 두음법칙을 소개하고 있는데 금방 자모를 익히고 아직 한자음이나 한자어가 무엇인지 모르는 초학자들에게는 너무 이르다. 두음법칙은 이미 굳어져서 사전의 표제어에서 등장하고 있는 만큼 구태여 초학자들에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이것은 한국어 능력이 일정한 수준에 이른 다음에 요해해도 한국어를 배우는 데 전혀 지장이 없다.

## 2.2 어휘

어휘는 외국어 교육에서 쉬운 것 같으면서도 가장 어려운 요소이므로 교재에서 반드시 중시되어야 한다.

### 2.2.1 어휘량

한 학기에 어느 정도의 어휘량이 학습자들의 습득에 알맞은지에 대해서는 편찬자들마다 나름의 원칙이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초급교재에서는 한 학기에 160 시간 수업의 분량으로 1300 개 좌우의 어휘량을 줄 수 있다. 1000 개 미만의 어휘량은 학습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1500 개 이상의 어휘량은 학습자에게 벅찬 느낌이다. <표 1>에서 보면 여러 교재들의 어휘량은 일정하지 못하다. 어떤 교재들은 두 학기에 주어진 어휘량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서 1 학기에는 어휘가 1001 개인데 2 학기에는 곱절되는 2000 여개의 어휘를 주고 있다. 또 어떤 교재는 상,하책에 통틀어 어휘가 1700 개 정도밖에 안되어 두 학기 분량으로는 정보량이 너무 빈약하다. 이는 본문 선정에서 어휘를 과학적으로 고려하지 못한 결과라 하겠다.

### 2.2.2 어휘 선정

학습자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시급한 어휘가 어떤 것인지는 학습자의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상생활과 학습과정에 필요한 기초어휘는 제한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한국어 기초어휘목록은 적어도 초급교과서 편찬에서는 중시를 받아야 한다.

필자는 임지룡의 기초어휘목록에 기준하여 일부 교재들에 출현한 어휘를 <표 2>와 같이 분석해 보았다.

<표 2> 기초어휘가 초급한국어교과서에 출현한 상황

교과서	상책	하책	합계	기초어휘목록이 차지한 비율
표준한국어 (25개 대학 편)	327	117	444	29.6%
초급한국어 (강은국 외)	480	281	761	50.73%
대학한국어 (우림걸 외)	303	200	503	33.53%
신편초급한국어 (최희수 외)	572	212	784	52.26%

이 숫자는 각 교과서의 부록에 붙인 단어표를 기준한 것이므로 단어표에 들어가지 않은 일부 수사나 의존명사가 통계에서 빠진 것이 있다. 그러나 그 비율에서 보듯이 우리의 교재들에서 기초어휘목록은 크게 중시되지 못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이 기초어휘목록이 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의 수요에 일치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적어도 고빈도순위의 어휘와 일상생활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어휘를 선정하여 모아놓은 기초어휘목록인데 50%의 이용율도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할 바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초급교재의 어휘를 선정함에 있어서 일상생활들에 필요한 반의어, 유의어들을 같이 주는 것이 바람직한데 “올다”는 나왔는데 “웃다”는 안 나왔고, 방위를 나타내는 “오른쪽, 왼쪽, 위, 아래” 등도 나오지 않았다. 1년 동안 배웠는데 이런 단어들마저 쓸 줄 모른다면 그 학습자의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또 어떤 단어는 피동형이나 복합형태가 먼저 나오고 있어 학습자들이 배우는데 어려움을 준다. 예를 들면 “닫다”, “열다”는 없이 “닫히다”, “열리다”만 나왔고, “나쁘다”가 나오기 전에 “나빠지다”가 나온 교재도 있다. 물론 경험있는 교사라면 이러한 교재의 부족점을 보완하면서 강의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교사에게 그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일이므로 될수록 교재의 완성도를 높여 강의나 학습에 더 나은 재료를 제공하도록 해야 한다.

### 2.2.3 의미 해석과 어휘 사용

교과서 편집에서 어음과 문법은 많이 중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어휘는 본문에서 새 단어를 중국어로 대응하여 준 것 외에 단어사용은 거의 외면되고 있다. 어떤 교과서에서 일부 단어를 따로 해석을 주었지만 거의가 문법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한자어에 한자를 달아준 교재도 있는데 이는 중국인 학생들에게 단어를 이해하고 습득하는 데 장점도 있지만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소지도 있다. 그러므로 한국어 한자어에 대한 상식도 함께 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어휘는 의미와 사용 면에서 모두 중시되어야 하는데 교재들에 반영된 어휘 교육의 내용들을 보면 단어표 외에 연습에서도 어휘는 문법만큼 중시되지 못하고 있었다.

제 2 언어의 어휘를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대응어를 익히거나 뜻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문화생활에 대한 모든 문맥 속에서의 의미관계까지를 배우는 것이다. 결국 단어 자체의 뜻을 기계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기본 개념을 익히는 과정에 불과하고 그 단어에 대한 완전한 이해는 관련 어휘와의 관계 속에서 가르쳐야 한다.(문금현, 한국어교육론 2, 81 페이지) 어휘사용에 대한 지식이나 연습이 더 비중있게 다뤄져야 할 것이다.

### 2.3 문법

교과서를 쓰는 중국인 학습자들에게 교착어인 한국어 문법은 너무 생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 교과서들에서 문법 지식에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 그러나 문법의 양에서부터 문법항목의 선정, 문법설명, 문법술어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 2.3.1 문법의 양

한 학기에 어느 정도의 문법을 가르치는가 하는 것도 교육기관의 양성목표와 교과과정에 따라 다르다. <표 1>을 보면 한 학기의 문법 양이 58개에서 많게는 210개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각 대학의 기초한국어 강의시수가 160 시간 정도라고 할 때 58개는 너무 적고 210개는 너무 많을 것이다. 대부분 교재에서 본문이 15-18 과로 되어 있는데 한 과에서 3-4 개 정도의 문법만 가르친다면 배당된 강의시수가 남아돌게 되고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는 정보량도 너무 적다. 그와 반대로 10 여개씩 가르친다면 강의시수가 모자라고 학습자들도 지겨워할 것이다. 물론 반드시 얼마를 가르쳐야 한다는 정설은 없지만 한 과에 7-8 개씩 한 학기 문법 양을 120 개 좌우로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을까 한다.

#### 2.3.2 문법항목의 선정

초급단계에 배워야 할 문법 항목들을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 문법은 어휘와 달리 사용순위가 절대적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어휘는 고빈도어가 아니더라도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것은 저빈도어도 기초어휘로 선정될 수 있다. 그러나 문법에서는 고빈도 조사·어미가 초급교재에 많이 반영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 세계화 추진 위원회에서 개발한 “한국어 평가용 기본어휘표(빈도순)”에서 “1 만 어휘 중 조사와 어미 빈도순” 180 순위<sup>8</sup>까지와 여러 교재들에 출현된 문법 항목을 대조해 보았다.

<표 3> 한국의 조사와 어미 빈도순위 180 위까지가 교재에서 출현한 상황

순위	한국	B	C1	C2	F	G	L	S	W	Y	Z	출현수
1	를(조사)	1 <sup>9</sup>	1	1	1	1	1	1	1	1	1	10
2	가(조사)	1	1	1	1	1	1	1	1	1	1	10
3	은(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sup>8</sup> 강은국(2007) “종합교재 문법 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참조.

<sup>9</sup> 표에서 숫자 1은 1권 혹은 상권에 나왔음을, 숫자 2는 2권 혹은 하권에 나왔음을 나타낸다.

4	엿(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5	는(조사)	1	1	1	1	1	1	1	1	1	1	10
6	다(어미)	1	1	1	1	1	2		2	1		7
7	의(조사)	1	1	1	1	1	1	1	1	1		9
8	어(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9	이(지정사)	1	1	1	1	1	1	1	1	1	1	10
10	고(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11	에(조사)	1	1	1	1	1	1	1	1	1	1	10
12	는(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13	로(조사)	1	1	1	1	1	1	1	1	1	1	10
14	을(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15	들(접미사)	1	1	1	1	1		1		1		7
16	와(조사)	1	1	1	1	1	1	1	1	1	1	10
17	도(조사)	1	1	1	1	1	1	1	1	1		10
18	게(어미)		1	1	1	1	1	1	1	1	1	9
19	지(어미)	2	1	1	1	1	1	1	1	1	1	10
20	에서(조사)	1	1	1	1	1	1	1	1	1	1	10
21	기(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22	어서(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23	는다(어미)	1	1	1	1	1			2	1		6
24	습니다(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25	면(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26	며(어미)	2	2	1	1	1	2	2	2	2		9
27	던(어미)	1	1	2	1	1	2	1		1		8
28	나(어미)	2	2	2		1	2	2	2	1	2	9
29	어야(어미)	1	2	1	1	1	1	1	1	1		9
30	음(어미)		1	1		1	1			1		6
31	겠(어미)	1	1	1	1	1	1	1	1	1	2	10
32	지만(어미)		1	1	1	1	1	1	1	1	2	9
33	에게(조사)	1	1	1	1	1	1	1	1	1	1	10
34	어요(어미)	1	1	2	1	1	1		1	1	1	9
35	만(조사)	1	1	1	1	1	1	2	1	1	1	10
36	다는(어미)	2	2	2	1	1				2		6
37	까지(조사)		1	1	1	1	1	1	1	1	1	9
38	니(어미)	2	1	1	1	2	1	1		1		8
39	면서(어미)	1	1	1	1	1	1	1	2	1	2	10
40	다고(어미)	1				1	2	2	1			5
41	는데(어미)	1	2	1	1	1	1	2	1	1	2	10
42	시(어미)	1	1	1	1	1	1	1	1	1	1	10
43	처럼(조사)			1	1	1			2		2	5
44	자(어미)	2	1	2	1	1	2	2		2	2	9
45	라(어미)			1		1						2
46	라고(어미)	1	1	1	1	1	2		2	2	2	8
47	부터(조사)	1	1	1	1	1	1	1	1	1	1	10
48	어도(어미)		1	2	2			2	2	2	2	7
49	나(조사)	2	2	1	1	1	2	1			2	8
50	다가(어미)	1	1	2	1	2	2	2	1	1	2	10
51	는다는(어미)	2		2				1				3
52	야(조사)	2			1		2				2	4
53	라는(어미)		2		1					1	2	4
54	더(선어말어미)											0
55	서(조사)		2	2						2		3
56	께(조사)		1	1	2	1	1	1	1		2	8
57	을까(어미)		2	2	1	2	2	2	1	2	2	8
58	오(어미)			2								1



59	느지(어미)	1	2	1		1	1	1		1	2	7
60	서(어미)		2									1
61	니까(어미)		2	2	1	1	1		1	1	2	8
62	로서(조사)		2	1	1	2			2	2		6
63	는가(어미)	2	2	1	2				2	2	2	7
64	보다(조사)		2	1	1	1	1				1	6
65	도록(어미)		2	2		2	2	2	2	2		7
66	야(어미)	2					2					2
67	는다고(어미)	1				2		2				3
68	하고(조사)		2	2	1	1	1		1	1	1	8
69	란(어미)		2	2			2					3
70	려고(어미)	1	1	1	1	1	1	1	1	1	2	10
71	은가(어미)	2	2	1	2							4
72	은테(어미)	1	2	1	1	1	1	2	2	2		9
73	라고(조사)	2	1	1	2	2		2				6
74	였었(어미)		2		2		2		2	2		5
75	여(어미)		2	1						2		3
76	거나(어미)	2	2		1	1			1	2	2	7
77	다면(어미)	2	2	2	2	2				2		6
78	은지(어미)	1	2	1	1	1	1			2		6
79	더니(어미)			2		2	2	2				4
80	지요(어미)	1	1	2	1							4
81	러(어미)	1	1	1	1	1	1	1	2	1	1	10
82	습니까(어미)	1	1	1	1	1	1	1	1	1		9
83	다(조사)		2		2							2
84	어라(어미)			1		1						2
85	마다(조사)		1	1	1	1	2	2	2	2	2	9
86	셨(선어말어미)											0
87	므로(어미)		2	1	2			2				4
88	냐(어미)				2				2			2
89	는다면(어미)		2			2				2		3
90	로써(조사)											0
91	소(어미)			2								1
92	쥬(어미)	2	1	2	1	1	1		1			7
93	라는(조사)		2									1
94	려(어미)			1	1					2		3
95	려는(어미)		2	1						1		3
96	고는(어미)			2								1
97	고(조사)			1								1
98	란(조사)		2	2	1			2	2	1		6
99	한테(조사)			1	1	1	2		1	1		6
100	듯(어미)	2	2	2	2	2		2	2			7
101	밖에(조사)		2	2		2		1	2	1	2	6
102	이나(조사)	2	2	1	1		1					5
103	대로(조사)						1			2		2
104	요(조사)		2	2	1		1					4
105	읍시다(어미)		1		1	1	1		1	1	1	7
106	요(어미)	1	2	2								3
107	곤(어미)	2	2	2		1	2					5
108	네(어미)	2										1
109	구(어미)											0
110	라도(조사)	2	2		2							3
111	더라도(어미)	2			2	2	2					4
112	께서(조사)	1	1	1	1		1		1		1	7
113	라도(어미)		2		2	2	2					3

114	라면(어미)				2	1						2
115	같이(조사)								2			1
116	든(어미)			2				2				2
117	아(조사)	2		1	1		2					4
118	구나(어미)	2	2		1	2	2		2			6
119	느냐(어미)			2	2	1				2		4
120	어야지(어미)				1							1
121	고도(어미)				2							1
122	라(조사)			1				1				2
123	조차(조사)		2	2						2		3
124	차는(어미)						2					1
125	고서(어미)			2					2			2
126	리라(어미)											0
127	굳(어미)			2						2		2
128	고자(어미)			2	2				2			3
129	단(어미)	2		2			2					3
130	이(어미)			1								1
131	긴(어미)						2					2
132	을지(어미)			2	2	2			2	2		5
133	굳요(어미)		1	2	1	1	1		2	2	2	8
134	려면(어미)			2	1	1	1		1	1	1	7
135	을수록(어미)	2	2	1	2	2	2	2				6
136	세요(어미)	1		2	1	1	1		1	1		7
137	다니(어미)				1		2	2	2	2		5
138	거든(어미)				2		2					2
139	던가(어미)	2										1
140	을까요(어미)	1	2	2	1	1	1	2	1	1	1	10
141	에게서(조사)			2		2			1		1	4
142	이란(조사)		2	2	1							3
143	자고(어미)			1			2	2				3
144	어지는(어미)											0
145	마저(조사)									2		1
146	니까요(어미)		2	2	1							3
147	보다(조사)		1	1	1	1	1			1		7
148	랑(조사)	1			1	2	2	1				5
149	건(어미)											0
150	든지(어미)		2	2	2	1	2				2	6
151	야말로(조사)											0
152	나요(어미)					1						1
153	다구(어미)											0
154	만큼(조사)			2	1	1						3
155	느냐고(어미)											0
156	라구(어미)											0
157	은지도(어미)		2									1
158	리라는(어미)											0
159	라면(어미)											0
160	느라고(어미)	2	2	2	2	2	2	2	1	1	2	10
161	되(어미)		2									1
162	냐고(어미)							2				1
163	며(조사)	2	2	1	1				2			5
164	자마자(어미)	2	2				2		2		2	5
165	자면(어미)									2		1
166	는데도(어미)		2		2	2		2				4
167	나마(조사)			2	2							2
168	거든요(어미)				1	1	2		1			4

169	더러(조사)											0
170	을지라도(어미)			2	2							2
171	리(어미)											0
172	히(어미)			1								1
173	거니와(어미)											0
174	만에(조사)								1			1
175	이라도(조사)	2	2		2							3
176	다시피(어미)											0
177	는단(어미)	2		2								2
178	면(조사)											0
179	랴(어미)				2							2
180	이테(어미)											0
각 교재의 합계(개)		81	106	120	112	96	91	70	79	87	60	
비율(%)		45	58	66	62	53	50	38	43	48	33	

<표 3>에서 보이듯이 여러 초급교재들에 한국어 고빈도 조사·어미가 출현된 것이 일정하지 않다. 180 개의 조사·어미가 초급교재에서 전부 출현할 수는 없지만 절반의 교재들에서 50%에도 못 미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어떤 교재는 본문이 전부 회화위주로 되었기에 해라체의 평서형 “다/니다/는다”가 출현되지 않았고 어떤 교재는 너무 관용구에 치우쳤기에 필요한 조사·어미가 제대로 설명되지 못했거나 출현 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어떤 교재에서는 문법항목을 선정할 때 본문에 나온 것을 빠뜨린 경우도 있었다<sup>10</sup>.

### 2.3.3 문법술어

지금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교재나 문법서들에서는 문법 술어가 통일되지 못한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남북한 문법의 이견으로 말미암아 현재 우리말로 기술되는 문법서들에서는 술어가 통일되지 못하고 있어 중국인 학습자를 위해 중국어로 기술하는 교재들에도 많은 문제들이 나타난다. 혹자는 한국어의 문법 술어를 그대로 음역하여 쓰고, 혹자는 조선어의 문법술어를 그대로 쓰고 있다. 또 한국어나 조선어의 술어를 따랐다 하더라도 중국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2009 년 양주대학에서 열린 학회연례회의에서 문법술어 사용에 대한 주제 토론이 있었고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오래지 않아 교재에서만은 문법술어 사용이 통일되지 않을까 기대한다.

## 3. 금후의 과제

이상에서 여러 교재들의 어음·어휘·문법에 대해 분석해 보았다. 비록 대체적인 분석이었지만 초급교재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교재편찬에서 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중시되고 연구되어야 하지 않을까 한다.

<sup>10</sup> <Z>에서는 조사 “의”가 2 책 제 1 과에 나오는데 문법에서 누락되었고, <S>에서는 하책 3 과부터 본문이 해라체로 나오는데 평서형 어미 “다/니다/는다”가 문법에서 설명되지 않고 있다.

첫째, 교재편찬이 이론 연구에 기반을 두고 개발되어야 한다. 어음·어휘·문법만 보아도 교재가 견실한 교수법이론에 기초하지 못하고 너무 경험에 의거한 면이 있었다. 이것은 교재의 맹목성과 국한성을 초래하게 된다.

둘째, 통일된 교수요강이 필요하다.

교과서는 일정한 교수요강에 따라 편찬하게 된다. 그런데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은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통일된 한국어 교수요강이 없이 학교마다 자기의 양성목표에 따라 교수요강을 제정하고 교재를 편집하였다. 적어도 초급교재에서는 어휘량, 문법항목 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말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전수할 언어지식 내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교과서에는 필요한 언어지식을 넣을 수 있다. 초급교과서의 경우에는 한국어 어음의 특성, 어음변화 등과 관련된 지식이 필요하고 한자어, 단어조성법 등의 기초지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식의 내용과 범위 및 전수 형식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가 잘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초어휘목록이나 고빈도 문법 순위 등이 교재편찬에서 중시되어야 한다.

교재가 제대로 만들어지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교재편찬에 필요한 기초자료가 구축되어 활용이 가능해야 한다. 외국어로서의 언어교육이 발달한 언어들에서는 어휘와 문법 항목의 등급 요강이 작성되어 교재편찬의 의거가 되고 있다. 그런데 한국어는 아직 이러한 작업이 진행중에 있어 어휘, 문법항목 선정에 주의성이 많다. 임지룡의 기초어휘목록은 지난 세기 90 년대에 만들어졌고 외국인을 위한 성인 학습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어휘들은 현단계 기초어휘로서의 가치가 떨어진다. 그러므로 현실자료를 기초로 한 고빈도 어휘나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어휘들을 선정한 기초어휘 목록이 필요하다.

다섯째, 단어의 뜻풀이와 문법항목 의미 해석이 단조롭다.

언어마다 다의어와 동음의의어가 있는데 교과서 편찬에서 이러한 단어들의 뜻풀이를 어떻게 하는가가 어려운 문제의 하나로 제기되고 있다. 지금까지 편찬된 교과서에서는 다의어 뜻풀이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데 거개가 다의 가운데의 하나의 뜻만 해석해 주고 그 다음에 나오는 다른 뜻은 해석해 주지 않고 있다. 문법항목 의미해석도 마찬가지이다. 개별적인 교과서에서 어느 한 문법항목이 나타내는 다양한 의미를 순차적으로 상세히 해석해 주었을 뿐 대부분의 교과서에서는 상세하게 해석해 주지 않았다.

여섯째, 교사용 지침서거나 학생용 활용서가 교과서와 함께 개발되어야 한다. 한국에서 개발한 교재들은 거의가 이 점을 중시하였는데 중국 대학들에서 나온 교재들은 대부분 교사용 지침서거나 학생용 활용서가 없다.

일곱째, 문법술어의 통일이 시급하다. 초급한국어 교재는 문법설명이 모두 중국어로 되어있는데 술어의 번역이 통일되지 못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sup>11</sup>.

#### 4. 맺는 말

교재편찬은 어휘조사, 교육과정, 표준문법 제정, 교수요목 설계가 끝난 다음 거기에 기초하여 편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미 중국의 한국어교육학회에서 세계도서출판사와 함께 새로운 교재개발에 착수하였고 여러 대학들에서도 좀더 나은 교재를 구상하고 있을 것이다.

비록 이 글에서 초급한국어 교재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고자 했지만 결국은 부분적인 분석과 논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고, 편독상 교재에서 잘된 점은 지나가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한했다. 10 여개 대학에서 만든 교재를 한 편의 논문에서 자세히 분석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이다. 더 많은 학자들이 이에 관심을 가지고 교과서 편찬에 대한 연구를 더 깊이있게 함으로써 교과서 편찬자들이 교수법 이론과 교과서 편찬 이론을 활용하여 더 나은 교과서를 편찬하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세계속의 조선(한국) 언어문학 교양과 교재편찬 연구』 민족출판사
- 강신도(2000), 「한국어 교재개발에 대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 강은국(2003), 「문법교과서 편찬에서 제기되는 이론 및 실천적 문제에 대하여」,
- 강은국(2007), 「종합교재 문법 항목 설정에 대한 연구 현황과 과제」, 『중·한수교 15주년기념 2007년 연례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국제한국어교육학회 편(2005), 『한국어교육론』 1,2,3, 한국문화사
- 김광해(1995), 『국어 어휘론 개설』, 집문당
- 김병운(2003) 「중국의 현실과 한국어기초교재 교수용 참고서 개발 방안」 『세계속의 조선(한국) 언어문학 교양과 교재편찬 연구』 민족출판사
- 김순녀(2004),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재의 현황과 과제--정독교재를 중심으로」, 『선청어문』 31, 서울대학교 국어교육과
- 김영희(2007), 「낙양외대 초급한국어교재의 사용에서 느낀점」, 한국(조선어)교육연구 제 5 호
- 김종택(1992), 『국어어휘론』, 탑출판사
- 노금송(2007), 「초급 한국어교재 편찬 방향」, 한국(조선어)교육연구 제 5 호
- 문금현(2005), 「어휘 교육의 과제와 발전 방향」, 『한국어교육론』 2, 한국문화사

<sup>11</sup> 문법술어의 통일에 대한 문제는 양주대학교에서 열린 중국 한국어(조선어) 교육연구학회 2009년도 연례학술대회 논문집을 참조하라.

서종학·이미향(2007), 『한국어교재론』 태학사

손정일(2006), 「중국의 한국어 교재」 『한국어 교육론』 1, 한국문화사

안병호(2000), 「중국에서 한국어 교재의 사용 실태와 그 개발 방안」,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염광호(2007), 「국내에서 출판된 한국어 정독교재에서의 문법서술에 대한 분석」, 『중·한수교 15주년기념 2007년 연례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유춘희(2002), 「초급한국어교과서 편집소감」, 『중국에서의 한국어(조선어)교육의 현황과 장래』, 월인

유춘희(2009), 「중국의 한국어 교육용 문법에서의 몇 가지 문제」, 중국 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 2009년도 연례학술대회논문집

유춘희(2010), 「초급한국어교재에서의 어음지식제시에 대하여」, 『중국조선어문』 2010년 1기

이득춘(2000), 「중국인용 한국어교재와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이은숙(2003), 「중국 대학의 초급한국어교재에 나타난 한국문화 교육 양상」 『세계속의 조선(한국) 언어문학 교양과 교재편찬 연구』 민족출판사

장광군(2000), 「낙양외국어대학의 한국어교재」, 『중국에서의 한국어교육』, 태학사

장향실(2003), 「중국어 모국어 화자를 위한 한국어교재 분석과 개발」, 『세계속의 조선(한국) 언어문학 교양과 교재편찬 연구』 민족출판사

중국한국(조선)어교육연구학회(2009), 『2009년도 연례학술대회논문집』

刘润清、戴曼纯 (2003), 『中国高校外语教学与改革现状与发展策略研究』, 外语教学与研究出版社

최희수(2003), 「한국어 교수 및 교재에서 제기되는 문제」, 『세계속의 조선(한국) 언어문학 교양과 교재편찬 연구』 민족출판사

부록: 분석자료로 이용된 교과서

- B: 韩国语 1 (修订版) -2, 李先汉等 2008/2001, 民族出版社
- C1: 初级韩国语 (上、下) (修订版), 崔羲秀 主编, 2006, 延边大学出版社
- C2: 新编初级韩国语 (上、下), 崔羲秀 俞春喜, 2006, 辽宁民族出版社
- F: 初级韩国语 (上、下) 姜银国 主编 2005/2006, 上海交通大学出版社
- G: 初级韩国语教程 (上、下), 全永根 曹永范, 2008, 世界图书出版公司
- L: 标准韩国语教程 1-2, 张光军 林亨裁 主编, 2006/2007, 辽宁民族出版社
- S: 初级韩国语 (上、下) 全龙华等, 2009, 延边大学出版社
- W: 大学韩国语 1-2 (修订版), 牛林杰 崔博光 主编 2009

Y: 基础韩国语 1-2, 金永寿 南日 主编 2007/2008, 黑龙江朝鲜民族出版社  
Z: 标准韩国语 1-2, 1996, 北京大学等 25 所大学共同编写